

중국의 辨質論治이론과 한국 四象體質의학에서의 體質이론 비교연구

김은희 · 서영광 · 정의홍 · 김선형 · 이수경 · 고병희 · 김달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Study for Comparing between Theory about "Constitution" in Chinese Medicien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Korea

Kim Eun-Hee, Seo Young-Kwang, Jung Yee-Hong, Kim Sun-Hyung, Lee Soo-Kyung, Koh Byung-Hee, Kim Dal-Ra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1. Objectives

This study is for comparing between theory about "Constitution" in China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Korea

2. Method

I referred to the literatures about "Constitution" published in China and Korea

3. Result and Conclusion

- 1) "Constitution"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 is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while, Constitution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an innovative concept developed from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2) The concept of "Constitution" in Chinese Medicien is related to long-term-period symptom or physical condition, while, the concept of Constitution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en includes not only long-term-period symptoms or physical conditions but also natural superiority and inferiority of individual according to 4 type Constitution.
- 3) The concept of Constitution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en has organized mind-body system than Concept of "Constitution" in Chinese Medicine. According to the theor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Mind is one of the best important things related type of disease. Lecture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give a full detail of correlation of Mind and disease.
- 4) Finally, The concept of "Constitution" in Chinese Medicien is changeable but the Concept of "Constitution"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en is not changeable. changeable elements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en are symptoms and syndromes of disease.

Key Words : Constituti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접수일 2009년 03월 04일; 승인일 2009년 03월 22일
• 교신저자 : 김달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49번지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440-8767 Fax : +82-2-440-8767
E-mail : dallkim@yahoo.co.kr

I. 緒 論

‘체질’이라는 용어는 현재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징.≒몸바탕.’, ‘조직 따위에 배어 있는 성질’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총괄하여 체질이라고 말하는데 또한 단순히 특성이나 기질 등을 체질이라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학적으로 널리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본이나 중국 한의학에서는 한국의 한의학과는 다른 의미의 체질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한의학의 학문적 교류가 점점 증가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임을 인정할 때 용어에 대한 개념정립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에 중의 체질의학과 한국의 사상체질의학에서의 개념 비교를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體質이론 발생의 배경, 體質형성의 과정 차이를 비롯하여 中醫에서와 한국 四象體質의학에서의 體質을 논함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中醫體質의 특징과 四象體質의학의 특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研究對象

본 연구는 중의학자인 왕기선생의 저작인 『중의체질학』을 기본으로 하여 중국에서 발표된 체질에 관련된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研究方法

이 연구에서는 體質이론 발생의 배경, 體質형성의 과정 차이를 비롯하여 中醫에서와 한국 四象體質의학에서의 체질진단 및 연구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中醫體質의 특징과 四象體質의학의 특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本 論

현대 中醫의 辨質論治는 王琦를 중심으로 70년대 이후에 부각되기 시작한 이론이다. 王琦는 中醫體質학 저술 이후 여러 논문을 통하여 中醫體質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四象體質의학에 대응하여 제기한 중의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辨質論治는 王琦를 중심으로 中醫學에서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현대 中醫들에 의해서 새로운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¹⁾

王琦를 중심으로 한 中醫 辨質論治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中醫辨質論治의 형성배경.

변증을 중요시해온 중의학의 전통 속에서 최근 王琦를 중심으로 한 중의학자들은 辨體가 질병을 예방하고 근본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王琦를 중심으로 한 중의학자들은 전통 중의학속에 體質적 요소가 있음을 주장하며 體質이론이 중의학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다.

王琦는 전통 중의학 속에서 體質이론이 구현되어 있음을 설명하면서 내경과 경약전서 등에서 그 근원을 인용하고 있다.¹⁾

그 외 대부분의 중의학자들의 경우 내경을 體質이론의 근원으로 바라보는데 내경에서 말하는 ‘同氣相求, 同氣相應’의 원리나 ‘同病異治’ 등을 그 근원으로 삼고 있다.

1) 靳琦, 王琦. “辨體-辨病-辨證診療模式”의理論要素與臨床應用.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6(1): 29(1):41-55
『景岳全書·卷之四十四·烈集』中說:“當因人因證之辨. 蓋人者, 本也; 證者, 標也. 證隨人見, 成敗所由. 故當以人為先, 因證次之. 若形氣本實, 則始終皆可治標; 若形質原虛, 則開手便當顧本.” 『醫門法律』亦說: “故凡治病者, 在必求其本, 或本于陰, 或本于陽, 知病所由生而直取之, 乃為善治.” 說明治本就是探求患者的陰陽動靜, 失衡的傾向性而治, 即以體質的陰陽偏頗為本. 疾病, 證候的產生無不系于體質, 亦即體質為本, 病證為標.

2. 기본원리 및 개념

1) '체질'의 정의와 특징

王琦는 중의체질학²⁾에서 용어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體質'을 '素質', '氣質', '症狀', '正氣' 등과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症狀'과 '證'을 '체질'이라는 개념에 비해서 가변적인 것으로 정의하여 '체질'이론이 '症狀'이나 '證'에 비해 개념적으로 '상대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질', '기질' 등에 비해서는 생리적 병리적으로 인체에 대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王琦는 첫째, 體質은 생리과정을 발전을 일으키며, 둘째, 심신적인 구성요소를 지니며, 셋째,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받으며 넷째, 품부유전적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2) 체질과 질병치료 당위성

① 또한 王琦는 “三辨模式” 이론을 통해서 ‘辨體-辨病-辨證’이 인체 질병치료의 원리가 됨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도 辨體가 가장 중요하며 질병치료의 근본이 됨을 설명하였다. 中醫학적 전통적 변증은 모름지기 辨體를 따라야함을 설명하고 3) 질병의 치료에는 辨體가 우선되어야함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辨體는 辨體質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體質과 증의 관계: 體質->병증의 易感性 유발한다.

王琦는 위의 과정 속에서 體質에 따른 병증의 易感性和 예후 등이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體質을 전체 9종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由于人體

氣血, 津液, 陰陽有差別, 臟腑功能強弱不同, 產生了不同的體質類”등陰陽, 氣血, 津液의 盛衰, 虛實의 변화의 차이에 따른 분류를 선택하였다.

또한 중의체질학에서는 기존의 내경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체질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③ 질병의 치료와 용약의 원리.

王琦는 질병의 치료에서부터 하나의 약제에 이르기까지 9종 體質에 따라 용약을 달리해야함을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어, 어혈지체에는 도인, 홍화, 陰虛之體에는 석곡, 생지황 등을 사용하도록하고 氣虛之體에는 당삼, 황기 등을 사용하게 하고, 痰濕體質에는 形은 비만권태한 사람이 많으므로 化痰祛濕하는 약을 사용하도록하였다.

體質이 강한 사람에게는 감모시 마황탕을 거리낌없이 줄 수 있으며 변비에 걸리더라도 體質이 강한 자에게는 通腑行滯시킬 수 있는 약을 사용하나 虛寒한 자에게는 보중익기탕 등의 약제를 사용해야함을 주장하였다.

3. 현대의 중의 체질분류

현대의 중의체질분류표는 Table 1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의 체질분류 임상적 연구에서는 체질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Table 2와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제시된 것 중 하나이다. 그 외에도 체질 구분의 기준이 제시되긴 하였으나 비교적 辨質의 특성이 뚜렷한 담습형 체질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론상에서 중의체질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질 진단의 기준인 증상, 체형, 성정이 균형적으로 고려되기 보다는 인체적 증상 위주의 기준이 대부분이다.

4. 中醫辨質論治와 四象體質의학의 공통점.

1) 첫째, 인체의 경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병증의 발현과 예후가 달라짐을 주장하였다. 四象體質의학에서는 인체를 넷으로 나누고 각 體質별

2) 왕기. 중의체질학. 도서출판 정담. 서울. 1999:3-508

3) 靳琦, 王琦. “辨體-辨病-辨證診療模式”의理論要素與臨床應用.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6(1) : 29(1):41-55

2. 1. 1 辨證須辨體

診察疾病, 辨識證候, 應時刻不忘顧及體質狀態. 因為體質與證候既密切相關, 又有層次上的差異, 需加以辨識. 體質是受先天因素, 后天因素, 社會因素等共同影響而形成的相對穩定的特質, 形成與轉變相對緩慢. 證候是由致病因素及機體對其作出的反應.

4) 王琦, 9종기본증의체질유형적분류급기진단표술의거, 북경중의약대학학보. 2005(4);28(4):1-28

平和質, 氣虛質, 陽虛質, 陰虛質, 痰濕質, 濕熱質, 瘀血質, 氣郁質, 特稟質

靳琦, 王琦“辨體-辨病-辨證診療模式”의理論要素與臨床應用.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6(1) : 29(1)

Table 1. 체질유형분류통계표

연구자	체질유형													
	정상질	음허질	양허질	음허질	양성질 (양열질)	음양 양허질	기허질	기체질 (가울질)	혈허질	어혈질	기혈 양허질	담습질	습열질	기체 혈어질
왕 기	+	+	+				+			+		+	+	
광조원	+	+	+								(+)	+	+	+
모국성		+	+	+	+		+	+	+	+		+		
하유민	+	+	+	(+)		+	(+)		(+)	+		+	+	+
진덕평	+	+	+				+			+		+	+	
양상청	+	+	+	+	+		(+)		(+)	+		+		
조지부	+	+	+		+						(+)	+	+	+
방만민	+	+	+		+	+						+		+
임제명	+	+	+		+			+		+	+	+		
화가방	+	+	+	+	+	+					(+)		(+)	(+)
유형분류총계	9	10	10	4	6	3	5	2	3	8	4	9	4	5

Table 2. 담습형체질의 선별기준

	내용	접수
1	설태가 하얗고 미끈거린다.	5
2	혀가 살졌다.	4
3	맥이 활하다.	4
4	가슴이 답답하다.	3
5	몸이 무겁고 상쾌하지 않다.	3
6	눈주위가 부었다.	2
7	복부의 비만	2
8	노곤하다	2
9	다리가 부었다	2
10	가래가 많고 혀여멀겍다.	1
11	가래가 많고 끈끈하면서 하얗다.	1
12	얼굴색이 담담하면서 누렇다.	1
13	입안이 끈끈하다.	1

로 발현되는 소증 및 병증 양상의 차이를 제시하였으며 中醫辨質論治에 따른 辨體에 해당되는 항목이 體質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인체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2) 둘째,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은 體質관별의 지표가 됨을 주장하였다.

四象體質의학에서는 인물형용과 용약반응과 더불어 병증 및 소증에 따라 體質을 구분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는 동의수세보원 四象草本卷에서부터 제시되고 있는 점이다. 中醫辨質論治에서는 寒多者, 熱多者, 陽多者, 陰多者, 虛者, 實者 등을 변증을 통해 구분하고 병증을 유발시키는 현상을 보고 辨體質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3) 셋째, 기존의 의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體質이론을 주장하였다. 四象體質의학은 송⁴등에 따르면 동의보감의 形證理論이 四象의학의 배경이 되었

음을 주장하였고 실제 동의수세보원 의원론⁵⁾에 따르면 역사적 배경이나 이론적 배경없이 독자적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인의 의학경험 속에서 장부성리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다.

中醫辨質論治 역시 여러 논문을 통해서 내경과 상한론 등에서 주로 그 연원을 찾고 있으며 이를 기존의 八綱辨證, 陰陽, 氣血 津液 등과의 관련성을 통해 體質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4) 넷째, 體質에 따라 병의 예후판단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四象體質의학에서는 병의 輕重과 緩急을 命脈 實數, 完實無病의 조건 등으로 예후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中醫辨質論治역시 정기의 성쇠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는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5) 다섯째, 신체적 영역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體質구분의 지표가 됨을 설명하였다. 四象體質의학에서는 성정에 따라 장부성리가 구성되는 바, 정신적 부분은 말할 것도 없으며 확충론이나 광제설 등에서 질병의 원인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도 있을 수 있음을 6) 주장하였으며 中醫辨質論

治에서도 이러한 대의는 크게 차이가 없다.

5. 中醫辨質論治와 四象體質의학의 차이점.

1) 體質이론의 형성의 배경적 차이.

한 의와 中醫에서 體質의학의 대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四象體質의학은 1900년 동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에 의해서 처음 발표된 의학으로 體質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넷으로 나누는 의학이다.

이제마가 四象의학을 창시하게 된 배경은 동의수세보원 의원론의 生於醫藥經驗五千載後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 著得一書 名曰 壽世保元の 四象人臟腑性理 에 가장 잘 나타나 있듯이 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성정에 따른 장부성리의 형성 편차에 따른 體質이론이다. 또한 동의보감의 形證理論을 제시하기도 한다.

中醫 辨質論治 형성의 배경은 대부분 體質의 근본을 고대 황제내경 『靈樞 二十五人論』에 언급된 五形之人에서 찾고 있다. 『<內徑>體質理論의形成的臨證應用』에 따르면 내경의 피부, 근맥, 기욕, 조감 차이발육 형태, 색택, 氣의 성쇠, 내장형태와 위치가 體質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또한 『靈樞 本神編』에서도 오장육부의 大小 長短 厚薄 結直 緩急에 따라, 기혈다소에 따른 한열허실 병증의 발현정도의 차이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靈樞에 體質이론의 장상적 기초가 존재함을 역설하였으며 體質적 형성 소인을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요소를 내경에서 그 연원을 찾고 있다. 『<內徑>體質理論의形成的臨證應用』 또한 임증응용에 있어서 변질을 통해서 질병의 易感性和 예후판단 및 변증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해 고찰하였다.

2) 體質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體質의 가변성에서의 차이유발.

四象體質의학에서는 “人稟臟理 有四不同”이라고 하여 하늘로부터 품부받은 성정에 따른 장부의

5)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醫源論』5-4 “生於醫藥經驗五千載後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 著得一書 名曰 壽世保元の 四象人臟腑性理”

6)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四端論, 2-10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遠散 則氣注肺 而肺益盛 怒情促急 則氣激肝 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 而哀情促急
 怒性宏抱 則氣注脾 而脾益盛 哀情促急 則氣激腎 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 而樂情促急
 喜性廣張 則氣注肝 而肝益盛 樂情促急 則氣激肺 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 而喜情促急
 樂性深確 則氣注腎 而腎益盛 喜情促急 則氣激脾 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38
 李梴曰 藏厥者 發躁無休息時 發熱七八日 脈微 膚冷而躁 或吐或瀉 無時暫安者 乃厥陰真藏氣絕 故曰藏厥 仲景無治法 而四逆湯 冷飲救之 又少陰病 厥而吐利發躁者 亦不治 而三味參黃湯 救之.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39
 論曰 少陰人 喜好不定 而計窮力屈 則心煩躁也 少陰病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者 此非計窮力屈者之病乎
 蓋喜好者 所慾也
 何故 至於計窮力屈 而得此少陰病乎 何不早用君子寬平 心乎
 然 初證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者 早用藥 則猶可免 死也

其病 至於躁無暫定而厥 則勢在極危也 豈不可憐乎 此證 當用參黃湯 四逆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차이로 인해 體質병증이 발생한다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선천적인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장부성리의 발생기전을 성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성정 중심의 體質의학을 창시하였다. 中醫학에서 말하는 변질과는 다르게 四象體質의학에서는 후천적인 경향성은 병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나 體質의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中醫辨質論治에서는 의학자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고대에는 황제내경과 상한론에 근거하여 體質적 이론을 제시했고, 현대에는 기존의 철학적 인식과 과학적근거를 기준으로 의가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유형을 구별하고 있다.

中醫辨質論治에서 제시하는 體質발생은 모든 변화의 가능성(유전적요소, 환경적요소, 기후), 성정, 사회적 요소) 이 陰陽, 寒熱, 虛實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러한 陰陽, 寒熱, 虛實의 경향성을 변증논치와 더불어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주장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은 辨證論治와 辨質論治간의 차이가 모호하다는 점인데,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인자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中醫에서 말하는 體質이라면 이는 때와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體質을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려우며 辨質論治가 변증논치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증상의 변화는 변증의 변화를 가져오며 변증을 통해 변질을 해가는 中醫辨質論治에서 體質이라는 것은 변증의 숫자 만큼이나 많아질 수 있으며 변증이 바뀌듯이 한 개체에 있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證을 소음인 胃受寒裏寒病보다 상대적으로 열증으로 본다 가정했을 때 한열이라는 병증의 차이는 가

변할 수 있으며 실제 치험례(소음인 10세 치험례)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나 中醫辨質論治에 따르면 이 소음인 十世兒는 體質 카테고리 자체가 수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결과적으로 王琦⁸⁾는 體質의 개념에 있어서는 四象體質의학과 같은 의미로서 體質의학을 제시하고 있지만 體質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辨體質分類, 主要對陰虛之體, 陽虛之體, 氣虛之體, 痰濕之體等不同體質的區別, 或補其陰, 或溫其陽, 或益其氣, 或利其濕等, 以恢夏其陰陽平衡, 實即治本之意.”로 體質구분을 제시하고 있어서 같은 기본정의에 출발하지만 결과 면에서 辨質論治는 四象體質의학과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3) 體質을 결정하는 구체적 항목별 차이점

한국의 四象의학을 위주로 논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四象體質의학에서 體質을 나누는 기준은 성정, 체형, 병증(평소병증, 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병증, 약에 대한 약증 기타 섭생에 따른 반응)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中醫의 辨質論治를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닌다.

(1) 性情(성정) vs 성격.

四象의학의 성정은 “확충론”에서 들어난 바와 같이 장부의 대소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예를 들면 회노애락이 心의 안정과 불안정에 따라⁹⁾ 병의

7) 靳琦, 王琦. “辨體-辨病-辨證診療模式”的理論要素與臨床應用.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6(1) : 29(1):41-55
 體質特征:痰濕質者多因脾虛失司,水谷精化障礙,以致濕濁留滯.或爲先天遺傳,或天過食肥甘以及病後水濕停聚.體質特征表形體肥胖,面色淡黃而暗,多脂,口黏,痰胸悶,身重,肢體不爽,苔多滑膩,脈滑或.易患消渴,中風,眩暈,胸痹,咳喘,痛痰飲等病証.辨體論治:治宜健脾利濕,化痰泄濁.代表方痰祛濕方(王琦經驗方),參苓白術散,澤瀉白

8) 王琦. On Scientific Meaning and Application of Treating by Differentiation of Individual. Journal of Zhejia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6;2

論辨體論治的科學意義及其應用(一)

辨體論治的概念 “體”是體質.辨體論治即以人的體質爲認知對象,從體質狀態及不同體質分類的特性,把握其健康與疾病的整體要素與個體差異,制定防治原則,選擇相應的治療,預防,養生方法,從而進行“因人制宜”的干預措施.辨體質狀態,包括辨體質的強弱肥瘦,年齡長幼,南北居處,奉養優劣等,其中包括人體的膚色,形態,舉止,飲食習慣,性格心理以及對季節氣候地域變更的適應性等

9)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四象人辨證論」, 17-11
 太陰人 恒有怯心 怯心寧靜 則居之安 資之深 而造於道也 怯心益多 則放心桎梏 而物化之也
 若怯心 至於怕心 則大病 作而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
 17-12 少陽人 恒有懼心 懼心寧靜 則居之安 資之深 而造於道也 懼心益多 則放心桎梏 而物化之也
 若懼心 至於恐心 則大病 作而健忘也 健忘者 少陽人

발생이 다르고 각각 손상시키는 장부와 손상의 정도가 다름을 體質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四象體質醫學會에서는 성정에 따른 생리, 병리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오고 있으며 성정이 體質과 體質병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辨質論治에서 성격은 단순히 용겁에 따라 辨質論治 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병증이 “겁이 많은 사람은 병이 잘 들고 용감한 사람은 기가 행하여 그친다” 등의 문장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제시되어있다.

또한 성정의 중도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中醫辨質論治와 많은 차이가 있다. 中醫辨質論治에서는 勇者를 상대적으로 怯者보다 우월한 위치로 보았지만 四象體質의학에서는 강한 것도 지나치면 병이 될 수 있음¹⁰⁾을 병증과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정을 辨質論治의 한 부분으로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어떤 양상으로 인체의 질병을 발생시키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

위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성정이 장부성리와 연결되고 성정에 따른 질병의 발생을 경향성을 주장한 四象의학은 질병발생과 성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만, 中醫辨質論治에서는 勇者의 병증, 怯者の 병증, 또한 팔강의 한열허실음양조습의 병증 모두가 辨體質의 각각의 항목이 되며 성정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장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성정이 어떻게 변體質의 다른 요소들, 한열, 허실, 음양 등과 관련되는지가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다.

(2) 體形(체형), 체형기상 용모사기

체형의 차이는 四象의학에서는 성정에 따른 기의 흐름과 장부대소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체형

病之險證也.

- 10)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陽人 泛論』11-3
 少陽人 吐血者 必瀉滌剛復偏急 與人並驅爭塗之
 淡食服藥 修養如釋道 一百日 則可以少愈
 二百日 則可以大愈 一周年 則可以快愈 三周年 則可
 保其壽.
 凡吐血 調養失道 則必再發 再發則前功 皆歸於虛地
 若再發者 則又自發日 計數 一百日 少愈 一周年 快愈
 若十年 二十年 調養 則必得高壽.

기상은 사상인 변증론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초본론에서부터 제시되고 있다.

辨質論治에서 체형의 차이는 ‘내경 四象의 오형지인’에 의거하며 체형의 차이 역시 비수흑백의 구분 정도로 한정되어있으며 모두 오행이론을 따르고 있다.

또한 中醫體質의학에서 四象體質의학의 체형을 논함에 있어서 승강의 개념만 있고 완속의 개념이 없다. 예를 들어, 태양인은 上實下虛, 소양인은 上盛下虛, 태음인은 下實上虛, 소음인은 下盛上虛 등으로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상하로만 장부의 대소를 설명함으로써 四象體質의학에서 수곡지기 뿐만 아니라 기액지기의 생리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완속의 개념이 中醫辨質論治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의 성정적 요소와 마찬가지로 질병의 발생역시 肥瘦黑白으로 나뉘어있을 뿐 장부의 대소에 따른 질병의 차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3) 소증 및 병증

四象의학에서는 각 體質별로 나타날 수 있는 소증과 병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辨質論治에서도 진한 시대 『내경』에서 中醫體質이론의 기초를 형성함을 주장하고, 王琦의 경우에는 평소면색, 신체상태 등을 병증과 연관시키고자하는 노력을 시행하였다.¹¹⁾

하지만 소증이 발현되는 원인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장부성리와의 간의 연결이 간밀하지 못하고 환경적 요소나 혹은 사회적 요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등 그 원인을 밝힘에 있어서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保命之主 개념

사상체질의학에서는 보명지주는 빼놓을 수 없는

- 11) 靳琦, 王琦“辨体-辨病-辨証診療模式”的理論要素与臨床應用.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6(1): 29(1):41-55
 體質特征:痰濕質者多因脾虛失司,水谷精化障礙,以致濕濁留滯.或爲先天遺傳,或天過食肥甘以及病後水濕停聚.體質特征表形体肥胖,面色淡黃而暗,多脂,口黏,痰胸悶,身重,肢體不爽,苔多滑膩,脈滑或.易患消渴,中風,眩暈,胸痹,咳喘,痛痰飲等病証.辨体論治:治宜健脾利濕,化痰泄濁.代表方痰祛濕方(王琦經驗方),參苓白術散,澤瀉白等.按:患者平素面垢油光,体形偏胖,身重困倦,陰囊潮濕,小便黃,舌苔微黃膩,脈滑數等,屬於中醫濕熱之質,患肝經濕熱下注之証.王琦教授運用清熱燥濕, 淡滲利濕等法,取龍胆瀉肝湯合二妙散爲主,治病兼以調整體質.

것으로 체질의 판단 뿐만 아니라 용약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예후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수없이 다양한 질병의 증상 중에 체질에 따른 예후를 판단함에 있어서 포인트가 된다. 실제로 수세보원에서는 질병이 낫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보명지주로 판단해야함을 여러 치험례¹²⁾에서 보여주고 있다. 소음인은 소화, 소양인은 대변, 태양인은 소변, 태음인은 땀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변질논치 이론에서는 병이 일정범위를 초과할 때는 체질이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병증이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발현할 때, 혹은 갱년기 체질이면서 담습형 체질일 때 등 연령별로 나타날 수 있는 체질적 특성과 개체의 기존의 체질적 특성이 겹칠 때 용약의 방향이 모호하며 의사에 따라 진단, 예후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IV. 結 論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王琦를 중심으로 한 中醫辨質論治는 四象體質의학과 비교하여 體質이라

12)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9-41
 嘗治 少陽人 傷寒 發狂 讞語證 時則 乙亥年 清明節候也
 少陽人 一人 得傷寒 寒多熱少之病 四五日後 午未辰刻
 喘促短氣
 伊時 經驗未熟 但知少陽人應用藥 六味湯 最好之理
 故 不敢用他藥而
 祇用六味湯一貼 病人喘促 即時頓定
 又數日後 病人 發狂 讞語 喘促 又發
 又用六味湯一貼則 喘促雖少定而 不如前日之頓定矣
 病人 發狂連三日 午後喘促又發
 又用六味湯 喘促 略不少定 有頃 舌卷動風 口噤不語
 於是而 始知 六味湯之無能爲也
 急煎白虎湯一貼 以竹管 吹入病人鼻中 下咽而 察其
 動靜則
 舌卷口噤之證 不解而 病人 腹中微鳴
 仍以兩爐煎藥 荏苒灌鼻 數三貼後 病人 腹中大鳴 放
 氣出焉
 三人 扶持病人 竹管吹鼻灌藥而 病人 氣力益屈強 三
 人 扶持之力 幾不能支當矣
 又 荏苒灌鼻 自未申時 至亥子時 用石膏 八兩
 未境 病人 腹中大脹 角弓反張之證 出焉 角弓反張後
 少頃得汗而 睡
 翌日平明 病人 又服白虎湯一貼 日出後 滑便一次而
 病快愈
 愈後 有眼病 用石膏 黃柏末 各一錢 日再服 七八日後
 眼病 亦愈
 伊時 未知大便驗法故 不察大便之秘閉幾日
 然 想必此病人 先自表寒病 得病後 有大便秘閉而 發
 此證矣

는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의미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1. 四象體質의학은 體質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인간을 구분하였다면, 辨質論治는 中醫의 팔강변증과 마찬가지로 병증을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따라서 中醫辨質論治는 ‘體質’이라는 개념을 통한 고대 중의학의 재해석이라면 四象의학은 기존의 중의학과 한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하나의 학설이다.

2. 실제 辨體質에 제시되는 ‘體質’은 사상의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소증이나 병증의 단계에 불과하다. 한열, 허실에 따른 병의 예후 차이 등은 사상의학에서는 체질진단의 하위개념으로 체질진단의 단계가 아닌 체질진단 이후에 세부적인 단계로서 소증이나 명맥실수를 진단하는 개념으로 봐야할 것이다. 즉, 각 체질 내에서 개체의 正氣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병의 경중과 예후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정도로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外形은 얻었으나 장부성리를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3. 또한 中醫辨質論治에서는 體質발생의 원리를 병증, 성격, 환경, 유전 등으로 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상의학에서 장부성리의 근본이 되는 성정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변증위주의 학문적 경향성으로 인하여 정신보다는 병증, 즉 인체 현상 중심적인 體質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4. 기육, 성정등과 辨質論治의 연관성에서 유기적인 내부적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기육, 성격, 환경 등의 결과적으로 본체의 특징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있으나 그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體質적 특성을 찾지 못했다. 中醫辨質論治는 기육, 성정, 한열, 음양, 등 體質 결정의 요소간의 관계형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한 體質의 구분과 경향성만 있는 것이지 사회의학으로서의 인간에 관한 포괄적 관리가 불가능하다.

실제 중의에서 제시하는 辨體質의 요소들은 辨體質의 기능성만을 보여줄 뿐 辨體質의 항목(기육, 성정, 한열 등) 등이 어떠한 상호관계로 인해 질병을 발생시키는지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 부족하다.

5. 中醫辨質論治의 體質은 가변적인 것이며 四象體質의학에서의 體質은 불변하는 것이다.

中醫辨質論治에 따르면 體質은 변증의 수만큼이나 많아지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모든 辨質論治를 여러 복합적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증상이 바뀌면 體質 자체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다. 四象의학에서의 體質은 증상에 따른 體質의 차이가 아닌 인물형용, 병증, 용약에서의 반응을 살핍으로써 증상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요소라고 하겠다.

6. 중의변질논치이론에서는 체질에 대한 구분은 있으나 각 체질별로 취약성과, 방향성, 지향해야하는 점이 보이지 않는다.

중의변질논치이론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의학 속에서 체질을 구분한 역사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정상질, 습열질, 어혈질 등이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법이 있을 뿐이며 한국의 사상체질의학에서의 ‘保命之主’와 같은 개념이 없다. 따라서 약리 반응에서 중의체질과 사상체질의학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체질별 보명지주에 따른 특징적인 약리반응이 체질진단의 지표가 된다. 반면 중의체질의학에서는 약리 반응이 없음으로 인해서 체질진단의 객관

화라는 측면에서 취약성을 가진다.

7. 향후 글로벌시대에 한의학계 내에서 ‘體質’이라는 개념과 용어의 사용에 관한 정리 및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參考文獻

1. 왕기. 중의체질학. 도서출판 정담. 서울. 1996: 3-508.
2. 靳琦. 王琦. “辨體-辨病-辨証診療模式”의理論要素與臨床應用.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6(1);29(1):41-55.
3. 王琦, 9종기본증의체질유형적분류급기진단표술의거, 북경중의약대학학보. 2005(4);28(4):1-28
4. 송일병. 사상인 체질증과 체질병증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4(1);6(1):71-79
5. 王琦. On Scientific Meaning and Application of Treating by Differentiation of Individual. Journal of Zhejia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6;2
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2004:3(2)